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 31일까지... 700만명에 예상세액 모두채움 안내

개인 종합소득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달 26일부터 납부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예상세액을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하고,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 환급(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등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PC),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ARS 전화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문의(국번없이 126 - 0번)에 연락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종합소득세를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 연계된 위택스 화면에서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5월 양도세 신고’ 해외주식 투자자 또 늘고, 부동산은 침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투자자 중 해외주식 투자자가 또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명에게 내달 7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더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투자자들이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안내를 강화하고, 홈택스 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끔 돕는다.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분 390만 가구 4.2조원...자녀장려금 두 배 증가

국세청은 오는 2일부터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급대상은 390만 가구로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관측된다.

1가구당 지급액은 평균 109만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요건은 꾸준히 확대 추세로 지난해 정기 신청 때는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가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지급액은 1조18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가구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한다.

모바일 신청 안내문의 ‘신청하기’, ‘큐알코드’ 스캔, 1544-9944 ARS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1566-3636번 신청대리 및 자동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